

# 61세 공사·부부 총잡이...“패럴림픽 즐기겠다”

도쿄 패럴림픽 내일 개막...화제의 광주·전남 선수들



‘60대’ 김옥금 양궁 개인전 銅 목표 2연속 메달 도전  
 사격 이지석, 선발전서 비공인 세계신...메달 정조준  
 광주 첫 보치아 국가대표 발탁 노영진, 실력 급등세  
 아시아 제패한 김세정, 대한민국 유일 조정 출전  
 전남 사격 이윤리·이춘희 부부 “금메달 합작하겠다”

전 세계인이 즐기는 또 하나의 축제, 2020 도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이 24일 막을 올린다.  
 도쿄 패럴림픽은 이날 오후 8시 일본 도쿄 신주쿠의 국립경기장(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13일간 펼쳐진다.  
 광주·전남 지역 출신·소속 선수와 임원 15명(선수 13명, 임원 2명)이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광주는 모두 14명(선수 12명, 코치 2명)이며 탁구, 양궁 등 6개 종목 출전을 앞두고 있다. 86명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광주 태극전사가 12명으로 가장 많다.  
 양궁에 출전하는 김옥금은 올해 만 61세다. 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가운데 최고령이다. 올림픽 출전 그 자체가 역사다. 그는 2016 리우 패럴림픽

에서 혼성 은메달,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혼성 은메달을 획득한 베테랑이다.  
 김옥금의 이번 올림픽 목표는 개인전 동메달. 그가 목표를 달성하면 패럴림픽에서 2회 연속 메달을 거머쥐게 된다.  
 광주 장애인사격 직장운동경기부 이지석은 지난 5월에 열린 2021 국가대표 1·2차 선발전에서 R5(10m 공기소총 복사 혼성) 단체전 한국신기록과 R4(10m 공기소총 입사 혼성) 단체전 비공인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 이지석은 같은 대회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로 획득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2021 런던 패럴림픽 결선 때는 아쉽게도 6위를 차지했으나 2020 도쿄 패럴림픽 메달을 정조준하고

있다.  
 노영진은 광주시가 최초로 배출한 보치아 국가대표다. 2019 서울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1위, 단체전 2위를 차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치아는 표적구를 향해 공을 굴려 표적구와 공의 거리를 점수로 매기는 경기로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는 스포츠다.  
 김세정은 2020 도쿄 패럴림픽 조정 종목에 출전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선수다. 그는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2015년과 2019년에 열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에서 PR1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아시아를 제패한 김세정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무대에 도전한다.



김옥금



이지석



노영진



이윤리·이춘희 부부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 이윤리는 남편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한다는 각오다. 그의 남편인 이춘희 전남장애인사격연맹 전무이사는 경기보조원으로 동행한다.  
 이윤리는 10m 공기 소총 입사, 50m 소총 3자세 2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며, 주 종목인 50m 소총 3자세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윤리 선수가 그동안 이 종목에서 2008년 베이징패럴림픽대회 금메달, 2016년 리우패럴림픽대회 동메달, 2010년 광주장애인아시아게임 금메달을 따는 등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어 도쿄에서도 메달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4개 목표로 잡았다. 이 중 2개를 광주 선수가 획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효자종목인 탁구에서 2개의 메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길·김영건은 백영복(전북)과 함께 남자 단체전(MT4-5) 경기에서 금메달을 노린다. 김정길·김영건 콤비는 2016년 리우 패럴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 리우의 감동을 잊겠다는 각오다. 박진철 또한 김현욱(울산), 차수용(대구)과 트리오를 이뤄 남자 단체전(MT1-2)에서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여자 탄환’ 톰프슨 ‘10초6’ 벽 깼다

세계육상 100m 10초54로 우승 ‘역대 2위’...올림픽 기록 0.07초 단축

일레인 톰프슨(29·자메이카)이 육상 여자 100m 역사상 두 번째로 10초6대 벽을 뛰어넘었다.  
 톰프슨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프리폰테인 클래식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100m 경기에서 10초54의 놀라운 기록으로 우승했다.  
 출발선에 선 선수들의 이름은 화려했다.  
 ‘살아있는 전설’ 켈리 앤 프레이저-프라이스(35)와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셰리카 잭슨(27·이상 자메이카), 아프리카 기록 보유자 마리호세 타루(33·코트디부아르), ‘신상’ 사캐리 리처드슨(21·미국)이 톰프슨과 함께 출발했다.  
 그러나 40m 지점부터 톰프슨의 독주가 펼쳐졌다. 프레이저-프라이스가 10초73으로 2위, 잭슨이 10초76으로 3위에 올랐다.  
 7월 31일 일본 도쿄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육상 여자 100m 결선에서 톰프슨은 10초61의 올림픽 신기록(종전 1988년 서울,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의 10초62)을 세우며 우승했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10초74로 2위, 잭슨은 10초76으로 3위를 차지했다. 시상식에는 자메이카 국기 3개가 올라왔다.  
 올림픽 후 처음 치른 경기에서도 자메이카가 1, 2, 3위를 휩쓸었다.  
 눈에 띄게 달라진 건, 1위 톰프슨의 기록이다.  
 톰프슨은 육상 여자 100m 역대 2위 기록을 작성했다. 여자 100m 세계기록은 지금은 고인이 된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가 1988년 7월 17일에 작성한 10초49다. 그리피스 조이너 이후 여자 스프린터들은 10초6의 벽을 돌파하고자 애썼다.  
 카말리타 지터(10초64)와 매리언 존스(10초65) 등 당대 최고의 스프린터도 10초6대 벽은 넘지 못했다. 프레이저-프라이스는 올해 6월 6일 10초63의 기록을 작성하며 ‘선수 기준’ 역대 2위로 올라섰다.  
 남자 100m에서는 안드레이 더그래스(27·캐나다)가 9초74로 우승했다.  
 /연합뉴스



일레인 톰프슨이 22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프리폰테인 클래식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여자 100m 경기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카드, 6년 만에 프로배구 컵대회 우승

OK금융그룹에 3-0 완승...5경기 141득점 ‘토종 거포’ 나경복 MVP

우리카드가 6년 만에 프로배구 컵대회 우승 트로피를 되찾았다.  
 우리카드는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2021 의정부-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결승전에서 OK금융그룹을 세트 스코어 3-0(25-23 28-26 25-21)으로 꺾었다.  
 2015년 청주 대회에서 OK금융그룹(당시 구단명은 OK저축은행)을 누르고 첫 우승을 차지한 우리카드는 또 한 번 OK금융그룹을 제물로 구단 역사상 두 번째 컵대회 정상에 올랐다.  
 OK금융그룹은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결승에서도 패배 컵대회 무관의 한을 풀지 못했다.  
 우승팀 우리카드는 상금 5000만원, 준우승팀 OK금융그룹은 3000만원을 받았다.  
 외국인 선수가 아직 동서 발급 문제로 참가하지 못한 이번 대회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우리카드 토종 거포’ 나경복이었다.

나경복은 결승전에서 62.06%의 높은 공격 성공률로 양 팀 최다인 22점을 올렸다. 준결승(32점)과 예선 3경기(87점)에서도 나경복은 최다 득점을 했다.  
 5경기에서 141점을 올린 나경복은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뽑혔고 상금 300만원을 쟁겼다. 나경복은 기자단 투표에서 31표 중 30표를 독식하며 1표를 받은 팀 동료 하승우를 여유 있게 제쳤다.  
 2015-2016시즌 신인왕, 2019-2020시즌 정규리그 MVP에 오른 나경복은 이제 ‘챔피언결전 MVP’를 꿈꾼다.  
 이렇게 준우승에 그친 OK금융그룹의 라이트 조재성은 MIP에 올랐다. 조재성은 25표를 받아 3표를 얻은 광명우를 앞섰다.  
 라이징 스타상은 장지원(우리카드)이 차지했다. 조재성과 장지원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 유도 안창림, 고향 교토서 ‘최고의 영예상’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재일동포 3세 유도 선수 안창림(27·KH그룹 필룩스·사진)이 고향인 일본 교토시로부터 ‘교토시 스포츠 최고의 영예상’을 받는다.  
 교토시는 20일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한 교토 출신 선수들에게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며 안창림을 포함한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안창림은 가라테 75kg급 동메달리스트 아라가 류타로, 펜싱 남자 에페 단체 금메달리스트 우야마 사토루, 야구 금메달리스트 오노 유다이(주니치 드래건스), 육상 남자 경보 20km 동메달리스트 야마니시 도시카즈, 여자 유도 57kg급 동메달리스트 요시다 츠카사와 함께 상을 받는다.  
 일본 교토 출신 안창림은 지난달 26일 도쿄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유도 남자 73kg급 경기에서 루스탐 오루조프(아제르바이잔)를 꺾어



기절반성으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인질
- 2관 인질
- 3관 모가디슈, 울드, 퍼피 구조대 더 무비
- 4관 싱크홀
- 5관 인질
- 6관 싱크홀
- 9관 모가디슈
- 7관 씨네커풀 싱크홀
- 8관 씨네커풀 프리 가이, 울드, 남색대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  
**제1회 창작희곡공모 당선작 낭독공연 양림**  
 일시 : 2021. 08. 30.(월) 16:00, 19:3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11-2759

GAC 11시 음악산책 5  
**조진주, 소리너머 양림**  
 일시 : 2021. 08. 25.(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